

경향신문 창간 60주년 축하 메시지

창간 예순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현대사와 굴곡을 함께해 온 경향신문은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폐간과 강제매각이라는 수난을 당하면서도 정의의 펜을 굽히지 않았고, 민주화 이후에는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하는 용기를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론의 지배구조가 과제로 대두되었을 때는 사원주회사로 거듭나 사회적 의제를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언론’ 으로서 우리 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경향신문에 거듭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진지한 대화와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다양하고 공정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전략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에 거는 기대가 큼니다. 공정한 보도와 책임 있는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앞날을 열어 가는 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창간 예순 둘을 축하드리며, 경향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